



'2007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

## 주택 건설 유공자 57명 포상

지난 12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신훈)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 대한주택보증(주)사장 박성표)이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2007 주택건설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에디터\_하유정 | 사진\_김형민



1 논현동 건설서관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12월 6일 주택 건설 유공자 57명을 포상하는 '2007 주택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2 금탑산업훈장을 수여 받고있는 김인상 벽산건설(주) 대표이사. 3 치사하고 있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4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의 기념사.

주택 건설 업체들의 큰 잔치인 '건설의 날' 행사에서 신훈 주택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주택 업계는 주택 시장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변화된 주택 환경에 스스로 탈바꿈해 주택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 산업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온 주택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주택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주택 건설 유공자 총 57명에게 정부 포상과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 행사에서는 김인상 벽산건설(주)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김호남 근화건설(주) 대표이사와 임병욱 금호산업(주) 부사장, 민광옥(주)유승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조영숙(주)동보주택건설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에는 봉희룡(주)한화건설 상무이사, 산업포장은 정현득 삼성물산(주) 상무이사, 김영세 천일건설(주) 대표이사, 박창민 현대산업개발(주) 상무이사, 김문규 리베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벽산건설(주) 대표이사 김인상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까지 삼성 그룹(건설, 중공업)에서 27년간 종사했고, 2001년 벽산건설에 입사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 건설 업계의 산 증인으로서 최고 경영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비서실, 해외 지사, 해외 현장, 영업 본부장, 건축 본부장 등 각 분야에 근무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8년에 발생한 IMF 체제하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 상

황에 처한 벽산건설에 입사해 회사의 재건에 착수해 혼신을 다하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기업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채율 215%, 연 매출 9465억 원의 건실한 주택 건설 업체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2001~2004년 벽산건설의 건축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한 주택 건설에 매진해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의 치사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적정한 시장 가격에 비해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거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팔리지 않는 게 시장 원리"라면서, "어디든지, 가격이 얼마든지 분양 공고만 내면 다 팔릴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실패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투기적 성격이 강한 다주택 수요를 다시 끌어들이 주택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주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주택 건설 시장을 정부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않겠지만,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도와주는 대책은 없을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한계 기업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주택 업계 임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건설의 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